

행복한 삶 *Happy Life*

사도행전 (Acts) 20:32-35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처음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일생에 3차에 걸쳐 세계선교여행을 했는데, 바울의 전도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공을 거둔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Paul evangelized in Ephesus for 3 years. Paul was assigned as a missionary to Antioch for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Paul completed three missionary journeys in his life. Ephesus was the most successful area that he missioned of the three journeys.

이제 바울은 인생도 황혼기에 와 있고 선교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3년 동안의 에베소에서의 삶을 결산하는 고별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At this point Paul is in the twilight of his life and he doesn't have much time to go on another missionary journey. So Paul is giving a farewell sermon that sums up the three years of his life in Ephesus. And the sermon goes like this.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언제나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근심하며 전송했다고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He preached, “In everything I did, I showed you that by this kind of hard work we must help the weak, remembering the words the Lord Jesus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Acts 20:35) So when he finished his sermon the people began hugging and kissing him. They were very concerned that they would never see him again so they wept. I imagine that it was a very touching moment. In this we find the necessary methods and conditions to live happily as a human being.

하나는 “즐거움으로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아주 즐겁게, 만족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딤후 4:7)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만족한 고백입니까.

First, live your life with a joyful mind while you work. Apostle Paul lived a joyful life as an evangelist. Not because someone told him too, but rather it was on his own that he enjoyed and was satisfied by his work. He lived his life in this manner and confessed it by saying,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2 Timothy 4:7) How satisfying that confession must have been.

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자신이 사역한 것을 평가하면서 만족하게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일을 소중히 알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삶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알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And also Jesus said, “It is finished.” (John 19:30) When Jesus was being crucified, he evaluated his work, confessed to God with satisfaction, and then he died. The person, who cherishes their work and works hard, has the right to the same confession when they die. This type of life is the life that God wants us to live. Those who work hard will receive God’s love and He will help them. It is beautiful when one works hard and acknowledges their work as precious.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쉼/휴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 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셨습니다(출 20:8). 예수님은 매일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영적인 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자신의 사역에 재창조를 이룬 시간입니다.

There’s another joy to a person that works hard, that is the rest/break that they take. Working is grace from God but so is rest. God said work for six days and rest for one (Exodus 20:8) Jesus always worked hard as he went from place to place. And he prayed in solitude every evening. That was his spiritual rest time. That was time for him to renew himself to work again.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학기가 끝나고 곧 방학이 주어집니다. 그 방학을 일컬어 “Va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청소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학은 노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학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또 휴가라는 말을 “Recreation”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Re”는 “다시”라는 뜻이고 “creation”이라는 말은 “창조한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휴가”라는 말은 “재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말과 방학이라는 말은 새롭게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When you study hard in school and the semester ends, there is a break before the next semester begins. That break is called a vacation. The origin of the word vacation is to be empty, to prepare. The vacation is not about taking a break or having leisure time, but rather time to prepare for the next semester. The English use the word holiday, which also means recreation. Recreation means to “create again”. So holiday means to create again. Therefore, holiday and vacation time prepare for us for a new start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두 사람이 산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한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사람은 한 시간 일하고 10분간 쉬었습니다. 그 10분간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니 “나는 그 10분동안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더 일의 능률이 나타났겠습니까? 바울은 소명 받은 후 주의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은 할 일을 다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I told this story once before. Two people went to a mountain to work. One person worked so hard without a break. But the other person took a ten-minute for every hour that they worked. Somebody asked him, "What did you do during the ten minutes?" He replied, "I sharpened the axe." I ask you, who worked more efficiently? Paul worked so hard after God called him. The last thing that he confessed was,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2 Timothy 4:7) This confession only comes from those who did their best and gave it their all. So we should do our best in our life.

둘째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조건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전하는 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어진 현재의 삶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무엇이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찬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같은 뜻입니다. 그 감사함의 내용이 그 삶에, 얼굴에, 생각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Second, another method and condition of being happy is to have a thankful mind. Apostle Paul lived his life by cherishing the time that he was spreading the Gospel. It is good when you have a thankful mind for your current lot in life. So having a happy life doesn't come from conditions, the environment, or possessions; it comes from your heart. When your mind is happy everything else is pleasant. Heaven is in your mind, not built at some fixed location that you can go to. Your mind is filled with praise. In this context, praise and thanks have the same meaning. It is the depth of our thanks that appears to others in the way we live our lives, the expression on our face, and in our thoughts.

찰스 스펀전(Charles Spurgeon)은 신학생들에게 설교자가 설교할 때의 표정에 대해서 강의하였습니다. "희망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위를 쳐다보라,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말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빛나는 눈동자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합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펀전은 "그 표정은 지금 자네의 그 얼굴이 적당하네"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는 데는 얼굴 근육이 72 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소를 지을 때는 14 개만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주름살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Charles Spurgeon lectured about facial expressions during sermons to seminary students. Look up when you talk about hope and open your eyes wide and show your pupils when you talk about grace, gratitude, and glory. A student asked him, "Then how do I make my facial expression when I talk about hell?" Spurgeon replied to him, "Just like the expression that you are showing right now." Did you know that it takes 72 facial muscles to frown? But it only takes 14 facial muscles to smile. So ladies, remember that a person that smiles often has fewer wrinkles.

사람이 정말 세상을 감사하며 살고 행복해 하며 살 때는 구겨졌던 얼굴의 주름살도 펴지고 마음의 주름살도 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원망도 사라지고 늠름도 방지될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외모는 왜소했지만 그 마음에는 아주 넓은 천국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아주 만족하고 행복한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음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When a person lives their own life with gratitude and is happy, their wrinkles will be much less, both inside and out. It will help prevent us from getting old. The Bible says, “Be joyful always.” (1 Thessalonians 5:16) and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1 Thessalonians 5:18) Being thankful is like a good vitamin when you live your life in that manner. Paul was a small person compared to the size of his heart, which was like the heavenly kingdom. Therefore he had a satisfied and happy life. So he confessed tha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2 Timothy 4:7) Much later when we’re older, when we can confess as Paul did, we too will have lived a successful life.

마지막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조건은 “주는 삶”입니다. 바울은 평생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100% 베푸는 삶입니다. 진정한 전도자라면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다보면 전도자의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을 다 바쳤습니다. 인생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정신과 혼을 송두리째 바쳐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자신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주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이고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 20:35 를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주는 삶이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Finally, “a life that is giving” is another method and condition of being happy. Paul was a giving person throughout his lifetime. An evangelist’s life is 100% giving. Being a true evangelist means giving up your own life for the sake of others. You cannot walk in the path of an evangelist when you are busy living your own life. Paul gave all that he had. He gave his youth, his life, and every bit of his soul when was an evangelist. But he was happy. It is the result of joy, happiness, fruitfulness, and thanks that he was giving to other people. So Acts 20:35 emphasize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Life that is giving is dignified and happy.

선교사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도 젊음도 시간도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주려고 마음먹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합니다. 다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준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얻으려 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돈을 꾸려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없습니다. 빚진 자도 어깨에 힘이 없습니다. 비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Missionaries set their mind to giving up their youth, life, time, and soul to others and to go on their mission. That’s why missionaries are confident about themselves. Because they are giving people. Giving makes people confident. But whoever tries to receive doesn’t have that same confidence. They even become a submissive person. People that need to borrow money lack confidence. Those that are in debt don’t have confidence either. They all become submissive in

their attitude or behavior. So Paul quoted Jesus when he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준다는 것은 반드시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말고도 줄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관심, 기도, 부드러운 조언들은 모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보의 기도는 베풀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나누는 삶입니다. 내가 누군가 병들어 누워있는 이웃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상당히 소중한 것을 베풀고 주는 삶입니다.

Giving doesn't always have to be materialistic. There are many things to give other than materials. Our heart, interest, prayer, and good advice are all items that can be given to others only when we are willing to give. By meditating and praying, Christians are giving and sharing with others. When I pray for my neighbor who is seriously ill and lying in bed, I am giving of myself to help them.

어떤 분이 영적으로 매우 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먼저 믿은 분이 그분을 늘 염려하면서 배후에서 기도해 줍니다. 멀리서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염려해 주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점점 이겨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인의 중보의 삶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좀 약한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그 신앙이 잘 자라도록 안내해주는 역할, 그것이 주는 생활이고 중보의 생활입니다. 그 삶이 가장 많은 것을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주는 사람이 있고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Let's say that someone is physically weak and having a difficult time spiritually. Other people notice this and begin praying for the weak person. They watch from a distance but continue to pray for them. When you see the person starting to overcome their difficulty, how joyful is that? What a joyful life we have when we pray intercessory prayers. When I am spiritually mature, I live a life of giving through intercessory prayers as well as giving guidance to those who are in need of help. That type of life is one that gives the most. We know the Bible says,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givers and receivers.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와 college 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좋은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오늘 설교한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일하며 살길 바랍니다. 자신에게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남에게 베풀어서 생긴 그 빈 공간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늘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take time today to congratulate those students who are graduating from high school. High school and college are very different from one another. Though the requirement to

study is the same,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at this age is having the responsibility to act on your own. There are many good messages for these young graduates who freshly step out into the new world. But my wish for them is to be faithful to God, as I have preached here today. I hope that you enjoy whatever you do after graduation. Because it is a beautiful thing when you fulfill your life by doing your best. And I want you to have a thankful mind. Give thanks to God and think positively in all circumstances. And have a life of giving to others. I hope that all the giving you do is full of God's grace and blessing.

우리는 사도바울의 삶의 모습과 그의 신앙고백을 보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향기 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rough Paul's life and confession of his faith to God, we learn what a real, beautiful and joyful life is. I pray in Jesus' name that you will have the same grace in your life as well as to those that are graduating today.